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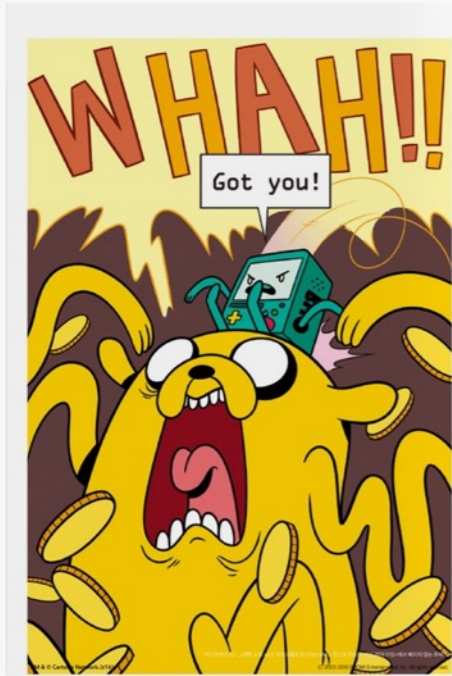


월간 그래픽노블

2016년 5월호 보도자료

Issue 16

도서명	월간 그래픽노블
ISSN	2289-0912
판형	크라운(170x240)
정가	13,000원
출간일	2016년 5월 9일
출판사	(주)피오니
대상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디자인, 일러스트, 장르 문학 관심 독자



Review: Story

무질서의 질서

콘서트 하방이 반을 치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만만한 지저분한 유머가 살아 있는 <어드벤처 타임> 같은 작품에도 무슨 스토리 구조가 있었을까? 그냥 신나게 뛰어들고 미칠듯한 난장이가 다 끝나면 집에 돌아와 지고, 다음날 일어나 또 뭔가를 할지는 어떨지 모르겠고 물론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어드벤처 타임>은 그 반쪽짜리는 형식 속에 나름의 정면한 내적 논리를 갖추고 있다. 진면지 아니지 어디 <어드벤처 타임> 속으로 어드벤처를 떠나보자.

단순한 직선 구조

많은 <어드벤처 타임>의 이야기 전하는 단순하고 직선적이다. 즉 한가지 이야기,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형식이 구조상 단순함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제약이다. 장편 애니메이션의 제작, TV 시리즈의 보통 제작의 제작비가 적당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할 것이 시간이 얼마 없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스토리를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편에 국한되고, 준비 중이어서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또 하나는 이 작품의 중요 시점 대량이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시간이 제한이 없지 않음. 그러나 노블은 완결적으로 이를 위해서 리얼리티, 즉 어떤 <어드벤처 타임> 그 자체도 노블 역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어떤지, 사용해야 할 이야기의 길이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끝까지 이야기의 길이를 어떻게 정할지, 어떤 결말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통하게 부록만 이야기 자체를 풀어내서, 책을 단행본처럼 보여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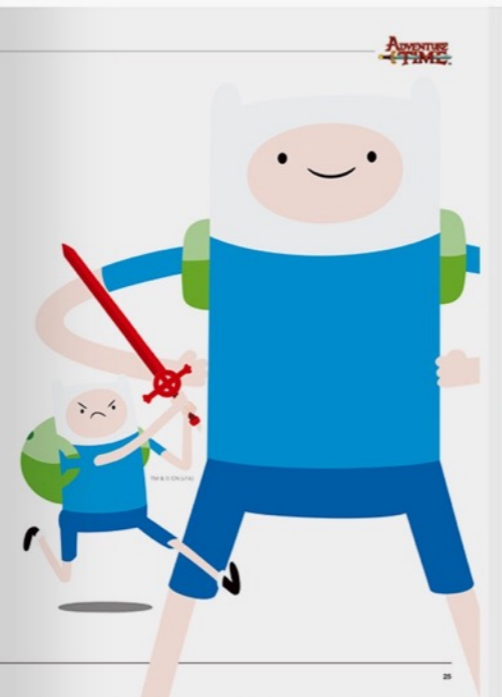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래픽 노블이란 작품의 형식을 적용하고 <어드벤처 타임> 작품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팬들과 제이크,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 사이에 등장한다. 팬서인 속서사대적 장면을 지기 위해 제이크나, 혹은 나온 것을 반기 위해 제이크나, 혹은 팬들을 한다. 팬들을 위한 도를 많은 차 나쁜거나 불만족 방정식으로 전개한다. 팬들과 제이크가 무정을 확인하여 시간을 해결한다. 지기 타임 -

단순한 속내적 논리

어떻게 간단한 구조를 몇 년에 걸쳐도 있는지도 불구하고 <어드벤처 타임>의 인기의 비결이다. 전설가가 될까? 만약 그 길인 제이크, 요한 어둠을 떠나서 제이크가 되, 제이크를 풀고 싶어 할까? 정말인가?

결론이 지정한 미국 케이블TV 시리즈에서 그가 황당한 이야기 반역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지기



1. 책 소개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 그래픽노블 16호에서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을 다룹니다. 버섯 전쟁으로 멸망한 세상에서 이토록 흥미진진하고 유쾌한 모험이 펼쳐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작품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장르가 영리하게 변주되는지, 단순한 구조로 어떻게 오랫동안 <어드벤처 타임>만의 즐거움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크리에이터 팬들턴 워드가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발휘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고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주년 특별 선물로 <어드벤처 타임> 노트도 함께 드립니다. Enjoy!



2. 목차

프롤로그(Prologue)

1. Be STUPID, FOREVER

리뷰(Review)

2. Story: 무질서의 질서

3. World: 세계관

4. Character: 캐릭터

5. Style: 기이한 세상 만들기

크리에이터(Creator)

6. 펜들턴 워드: 압박 속에서 웃음 만들기

7. 워드의 조력자들: 우정이어, 영원하라

컨텍스트(Context)

8. 스티븐 유니버스, TV애니메이션이 진화하는 방식

9. 어드벤처 타임의 노래

10. 어드벤처 타임 Goods

11. 크리에이티브 뉴페이스/ 우디세우스 박소연, 박은경 인터뷰

12. 출판사 인터뷰/ 미메시스

13. 이슈 업데이트/ 피너츠 완전판

14. 바이오 그래픽 노블/ 찰스 다윈: 그래픽 평전

15. 그래픽 노블 x 뮤직/ BDMUSIC Jazz

16. 월간 그래픽노블 2주년 리뷰

17. 해외 그래픽 노블 소개: 소녀니의 은밀한 북카드

18. 국내 출간 그래픽 노블 소개: 그래픽노블 픽스

19. 에디터 노트





Issue Update

오리저널을 찾아가는 즐거움
「피너츠 완전판」



50년 동안 단행본 그려왔는데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하나의 책으로 묶을 때까지 그려왔다는 것은...

고향인 세인트를 처음 소개해서 「피너츠」는 세계 각국 스타일링을 그려낸 솔츠는 언론사에 의뢰로 요청했다...

1990년 12월 23일 솔츠의 사망 소식을 접한 피너츠의 동료들은 첫 번째가 사망했다 「피너츠」 50년 특집을 준비...

「피너츠 완전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원작 피너츠와 솔츠의...

관심을 끌기에는 빠르다. 하지만 원작만 보면 언뜻 언뜻 피너츠의 매력은 캐릭터와 작가가 하는 묘담은 조금씩 다르다. 솔츠가 이 캐릭터를 그려가며 작가가 더 넓고더 깊게 사용한 의미도...

솔츠는 「피너츠」의 첫 인물을 그린 것은 1950년이었다. 당시 피너츠는 수필가로서 피너츠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솔츠도...

하지만 역시 피너츠의 매력은 원작에 있다. 솔츠의 실용 속에는 늘 있는 정열과 의욕, 진취적인 열정이다. 그 속에서 피너츠는...

3. 기획의도

<월간 그래픽노블>은 매호 하나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작품의 주제에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시대 상황, 작가의 철학, 그에 영향을 준 문화 등을 폭넓게 다루어 독자들에게 재미와 교양을 주고자 하는 잡지입니다.

또한, 창작의 영역에 있는 명사들을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서사, 추천하고 싶은 그래픽 노블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화 창작자,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장르 소설가, 영상 제작자, 게임 기획자, 공연 설계자처럼 다양한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재미 이상의 영감을 드릴 것입니다.

4. 출판사 소개

피오니북스는 (주)피오니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주)피오니는 알프레드 히치콕, 클린트 이스트우드, 스티븐 스필버그, 구로자와 아키라, 피터 잭슨, 팀 버튼을 좋아하고 항상 우주를 동경하며 꿈과 모험을 추구합니다.

궁리, 길찾기, 논장, 도서출판 다른, 마루벌, 문학과지성사, 문학세계사, 문학동네, 미메시스, 북하우스, 비아북, 사계절 출판사, 새만화책, 샘터, 서해문집, 세미콜론, 솔출판사, 시공사, 씨네21북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아롬드림미디어, 애니북스, 열린책들, 푸른책들, 현암사, 황금가지, 휴머니스트 등 피오니북스는 다양한 그래픽노블 출판사들과 협력합니다.

GraphicNovel x Music: ECMUSIC Jazz

음악 그리고 그래픽 노블

예술은 서로 통한다.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예술의 근본 욕구이기 때문이다. ECMUSIC(Ende Designe Music)은 '인쇄 음악'이란 뜻으로 그래픽 노블과 음악이 만났다. 음악가의 생애를 그려내면서 그래픽 노블과 그리고, 2장의 CD에 음악을 담았다. 클래식, 재즈, 블루스,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굿모닝북스(goodmorning.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에는 그래픽 노블 작가들이 직접 원하는 뮤지션을 골라 음악이 그려진 작품을 보면서 음악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제트블루를 소개한다.

Julie Londo 재즈 연인

80페이지에 달하는 컬러 그래픽 노블은 1950년대 음악을 리믹스한 CD 2장과 그래픽 노블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픽 노블이 담고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와 음악 연인인 재즈 뮤지션들의 생애를 그린 그래픽 노블은 음악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제트블루를 소개한다.

작가가 추구하는 '인쇄 음악'이란 뜻으로 그래픽 노블과 음악이 만났다. 음악가의 생애를 그려내면서 그래픽 노블과 그리고, 2장의 CD에 음악을 담았다. 클래식, 재즈, 블루스,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굿모닝북스(goodmorning.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에는 그래픽 노블 작가들이 직접 원하는 뮤지션을 골라 음악이 그려진 작품을 보면서 음악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제트블루를 소개한다.